

KODEX 국채선물10년 ETF (152380)

■ 펀드 ■ 기초지수

Kodex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.

2023년04월30일 기준

준법감시인 승인필 202304-2ETF3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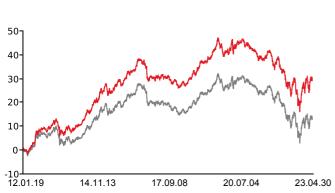
10년 국채선물지수(F-LKTB)에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ETF 입니다.

누적수익률(%)
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설정후	연초이후
KOEX 국채선물10년	0.14	-0.09	7.95	1.35	29.42	4.16
기초지수	-0.11	-0.83	6.34	-0.82	13.02	3.10
기초지수 대비	0.24	0.74	1.61	2.17	16.40	1.07

[※]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수익률 그래프(%)



- 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수익률 기준입니다.
- ※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기초지수 구선 형화(%)

기포시구 구경 건경(%)	
2023-06 국채선물10(신)	100.00
포트폴리오 구성 종목(%)	
2023-06 국채선물10(신)	100.00

※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투자 위험 등급 : 4(보통 위험)					
1	2	3	4	5	6
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지수소개

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10년 국채선물지수는 KRX 10년국채 선물시장에 상장된 최근 월 종목의 가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로서 최근 월물을 차근월물로 롤오버 하는 방법으로 산출됩 니다. 2011년 1월 3일(1,000 포인트)를 기준으로 하여 10월 24일부터 산출/발표되었습니다.

※ 월물교체: 연 4회(3월, 6월, 9월, 12월)

※ 보다 자세한 월물 교체 시기 및 방법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본정보

펀드명	삼성 KODEX10년국채선물증권 ETF[채권-파생형]
기초지수	10년 국채선물지수
펀드순자산총약	맥 1,203.63억원
1주당 NAV	64,711.42원
총 보수	연 0.07%(지정판매 0.005%, 집합투자 0.045%)
	(신탁 0.01%, 사무수탁 0.01%)
최초 설정일	2012.01.19
상장일	2012.01.20
분배	분배금 발생 시 연 1회 지급
운용회사	삼성자산운용
사무수탁회사	신한펀드파트너스
수탁은행	HSBC(수탁사)
환매수수료	해당사항 없음
환매방법	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,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
T-1-1-11-11-0 -	

[※]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거래정보

거래소	한국거래소
표시통화	원
거래단위	1주
설정단위	6,000주
거래소코드	152380
ISIN코드	KR7152380002
블룸버그 Ticker	152380 KS ⟨Ea⟩

투자분배금 지급현황

지급기준일	분배금액(원)
조회된 데이터기	l 없습니다.

알려드립니다

- 2010년 7월 1일부터 본펀드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가 적용됩니다.
- KODEX 국채선물10년 ETF는 1주 매수로 장기채권의 수익률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향후 10년 국고채권의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이상적인 투자대상입니다.
- ※ 10년 국채선물: 만기 10년, 표면금리 연 5%,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가상의 국고채권 표준물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선물상품 입니다.



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,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투자 전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